



구 절 초

사진 김 정 명
(鳥類作家)

글 김 재 황
(시 인)

낙엽 텅구는 밤, 풀밭에 나가 피리를 부네. 구곡간장의 피리를 부네. 눈시울 적시는 피리를 불면, 흰 눈 밟는 소리로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는 달 그림자. 눈물을 훔치면, 피리의 여음이 흔들리던 구절초도 웃고 있네.

구절초는 엉거시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전국 각지에 분포하며 산지의 풀밭등 양지바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줄기는 바로 서고, 여러 개로 나뉜다. 보통, 아래쪽 잎은 깃 모양으로 잘게 제졌는데 자루가 길며 앞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담녹색을 띤다. 그런가 하면, 위쪽 잎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바소꼴로 나타난다. 키 30cm 안팎.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꽃이 핀다. 꽃빛깔은 희고, 가끔 연분홍 빛을 머금기도 한다. 한 열씩 돌리는 혀를 닮은 꽃잎은, 끝이 얇게 들이나 셋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가운데 대롱을 닮은 꽃잎은, 끝이 다섯 개로 나뉜다.

구절초는 가을에 뿌리째 캐어서 약재로 쓰는데, 9월 9일에 얻은 것이 가장 약효가 좋다고 하여 '구절초'(九節草)라 부른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며 주로 부인병을 다스리는데 쓰인다.

구절초는 향기로운 그 꽃으로 하여 '선모초'(仙母草)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얻었다. 원래 '선모'(仙母)란 정재(呈才)때에 헌선도(獻仙桃) 춤에 선도반(仙桃盤)을 올리는 기생을 말한다. 불현듯 기생이었던 '만덕'의 일이 생각난다.

'만덕'(萬德)은 제주의 양가집 딸로서 성은 김씨였다.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기에 기생 노릇을 했다. 그 후에 관가에서 기생 명부에 올랐다.

그녀 나이가 스물 남짓 되었을 때, 만덕은 울면서 하소연하여, 불쌍히 여긴 관청에서 양민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만덕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으나,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

어느 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만덕은 쌀을 육지에서 사다가 풀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만덕이 우리를 살렸네”

제주 사람으로 만덕의 일을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